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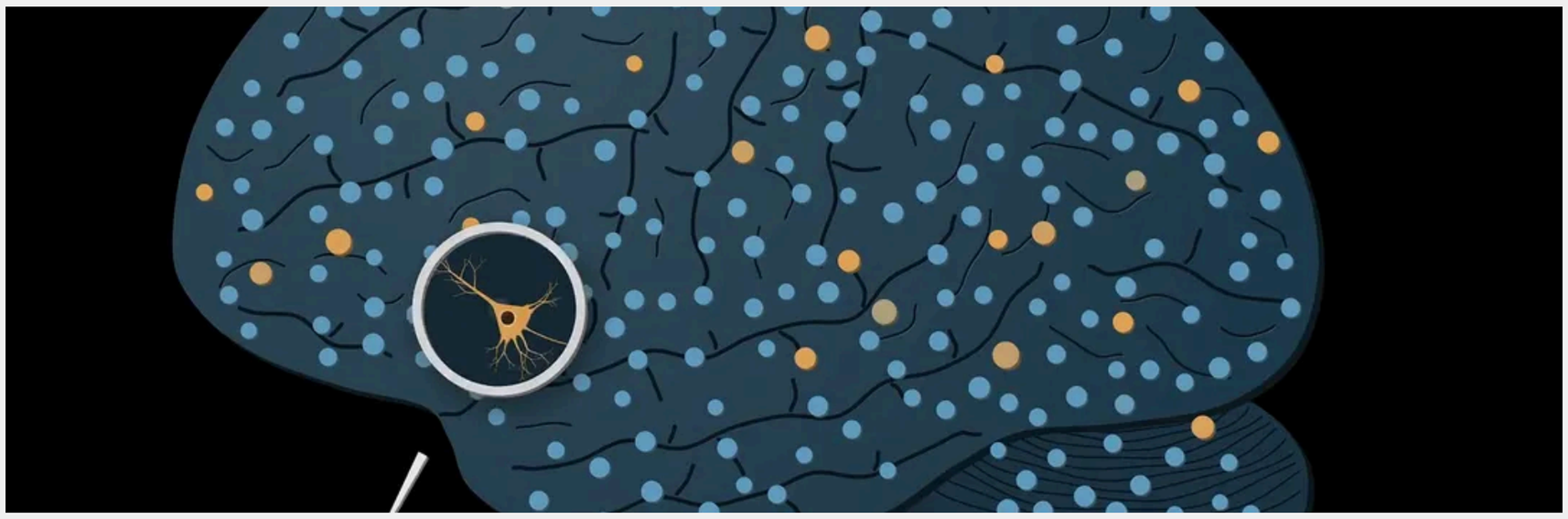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51 호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 오늘의 AI

AI

오픈AI, 에이전트 1946개로 뇌세포 데이터 분석

오픈AI가 퍼터브AI·스크립스 연구소와 함께 GPT-Rosalind 에이전트 1946개로 쥐 뇌 유전자 교란 데이터를 32분 만에 분석했다. 블라인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75%의 판정에서 분산 에이전트의 해석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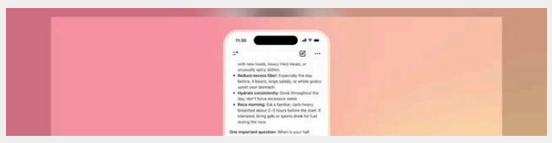


AI · 오픈AI, 에이전트 1946개로 뇌세포 데이터 분석

오픈AI가 AI 에이전트 1946개를 동시에 돌려 쥐 뇌세포 수백만 개의 유전자 교란 데이터를 32분 만에 분석했다고 10월 21일 발표했다. 퍼터브AI,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와 함께한 연구다. 에이전트는 생명과학 전용 모델 GPT-Rosalind로 움직였다. 연구진은 사람이 교란 하나씩 데이터를 해석하고 문헌을 찾으면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일로 추산했다. 에이전트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새 단서도 내놨다.

분석 대상은 올해 3월 공개된 전뇌 CRISPR 아틀라스다. 쥐 뇌 전체에서 유전자 2000개 가까이를 하나씩 망가뜨린 뒤 세포 유형별로 어떤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지 잰 데이터다. 원래 논문을 낸 연구진은 통계, 유전체학, 신경과학 전문가가 팀을 꾸려 분석했지만 데이터 속 생물학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석되지 못한 채 남았다고 밝혔다. 실험 규모가 커질수록 측정보다 해석이 병목이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문제의식이다.

연구진이 내놓은 방식의 이름은 분산 생물학적 추론이다. 교란 하나에 에이전트 하나를 붙였다. 각 에이전트는 세포 유형별 유전자 발현 변화와 실험 조건을 받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다른 교란과 비교하고, 논문을 찾아 읽은 뒤 해석과 근거, 주의 사항, 후속 실험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썼다. 보고서들은 유전자와 세포 반응, 문헌, 가능한 기전을 잇는 추론 아틀라스로 묶였다. 에이전트들은 모두 3만 9185편의 논문을 읽고 1만6445건을 인용했다.



전자 발현 데이터만으로 도출할 수 있는 원 논문의 발견 55개 가운데 48개(87.3%)를 그대로 찾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일부만 찾은 4개까지 더하면 94.5%다.

에이전트 하나에 데이터 전체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 연구진은 같은 모델과 같은 도구로 비교했다. 교란 893개를 한 에이전트에 몰아 주자 인용한 문헌이 11건으로 줄었다. 반면 교란마다 따로 붙은 분산 에이전트는 그 711배의 문헌을 남겼다. 일이 많아질수록 단일 에이전트는 문헌을 덜 찾았고, 분산 에이전트는 같은 깊이를 유지했다.



구글 딥마인드, 10m 숲 유형 지도 공개

사람 전문가의 판단과도 맞춰 봤다. 박사급 생물학 전문가 30명이 생성형 AI 없이 보고서 60건을 블라인드로 평가했다. 분산 에이전트와 단일 에이전트의 해석 20쌍을 전문가 3명씩 나란히 놓고 고른 판정 60건에서 전문가들은 45건(75%)에서 분산 에이전트 쪽을 골랐다. 단일 에이전트를 고른 것은 10건, 동점은 5건이었다. 에이전트가 매긴 신규성 점수와 사람의 신규성 점수 사이 상관계수는 0.61이었다.

에이전트가 찾은 단서 가운데 오픈AI가 앞세운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포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mTOR를 함께 통제하는 Tsc1과 Tsc2 유전자의 차이다. 여러 뉴런에서는 두 유전자를 망가뜨린 결과가 비슷했지만, 운동을 조율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더 만든다는 기존 연구와 연결했다. 블라인드 평가에서 이 보고서는 후속 연구 우선순위 5점 만점에 4.3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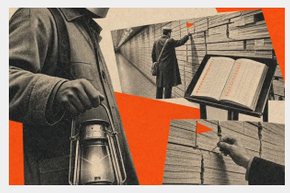
토마시 노바코프스키 UCSF 신경외과 부교수는 "단서는 때로 이미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잇지 못했을 뿐"이라며 "뉴런 기능과 콜레스테롤 대사 사이의 가능한 연결은 그 조각들이 모였을 때 질병 생물학을 새롭게 생각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인간 세포 아틀라스의 공동 창립 의장인 세라 타이크만 케임브리지대 줄기세포의학 석좌교수는 "우리가 세포 아틀라스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과학자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발견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AI는 더 많은 연구자가 이 자원을 탐색하고 뜻밖의 관찰을 시험할 새 질문으로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탈이 확인한 bioRxiv 논문은 10월 16일 올라온 프리프린트로,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저자 14명 가운데 6명이 오픈AI 직원이고 2명이 퍼터브AI 직원이며, 퍼터브AI 공동창업자 두 명이 저자에 포함됐다. 사람이 걸릴 시간은 시급 22달러, 교란 하나 해석에 15분, 논문 한 편에 10분을 가정한 추산이며 실제로 잰 값이 아니라고 논문은 적었다. 에이전트가 낸 기전은 실험으로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연구진은 추론 아틀라스와 분석 파이프라인을 깃허브에, 원 데이터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퍼터브AI가 만든 1분 23초 분량 영상은 에이전트가 생물학적 단서 1만1000개를 찾아 유망한 단서 약 100개로 좁혔다고 소개한다.

메탈은 오픈AI가 9월 GPT-Rosalind를 연구 프리뷰에서 API와 코덱스로 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때 모델은 실험 계획을 짜는 도구로 소개됐고, 이번에는 이미 끝난 실

오늘 지면

1 AI 오픈AI, 에이전트 1946개로 뇌세포 데이터 분석
2 AI 오픈AI, 구글 클라우드 모델 가든 입점
3 AI 오픈AI, AT&T 사내 법무 AI 사례 공개
4 AI 오픈AI, Decisions API 정식 출시
5 AI 오픈AI, FDE 팀 운영 원칙 공개
6 AI 오픈AI, 챗GPT 광고 26개국 추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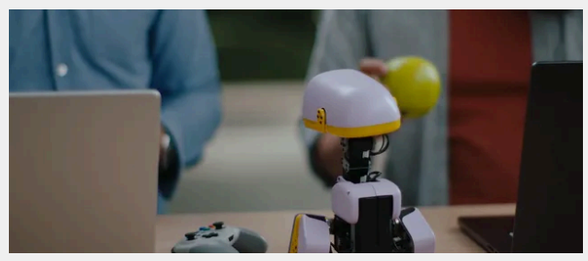
앤스로픽, 클로드 시큐리티 상시 스캔 공개



앤스로픽, 클로드 API 3년여 만의 새 버전 공개

이 지면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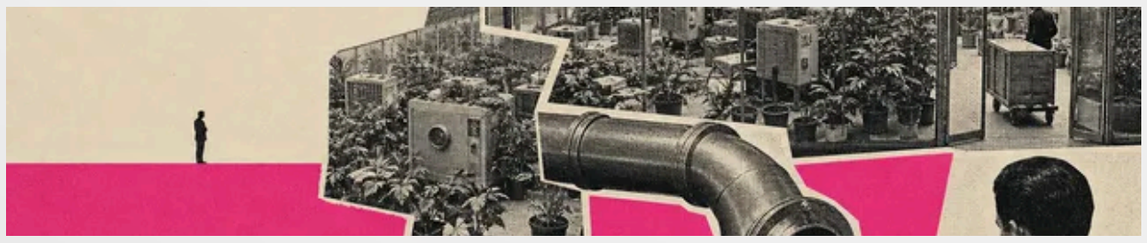
오픈AI, Decisions API 정식 출시

오픈AI가 10월 22일 Decisions API를 정식 출시했다. 앱과 에이전트가 입력을 분류하고, 요청을 어디로 보낼지 정하고,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고르는 작은 판단을 맡기는 전용 API다. 회사는 GPT-6 Luna로 만든 이 API가 답의 범위가 정해진 질문에 모델의 지능을 집중시켜, 텍스트·이미지·구조화된 입력을 받아 Responses API로 GPT-6 Luna를 부를 때보다 최대 10배 빠르게 결정을 낸다고 밝혔다. 오픈AI

▶ 2면에 계속

AI

오픈AI, 구글 클라우드 모델 가든 입점



오픈AI가 자사 최신 모델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팔기 시작했다. 두 회사는 10월 21일 오픈AI의 프런티어 모델과 코덱스(Codex) 에이전트 작업 흐름을 구글 클라우드의 모델 가든(Model Garden)에 넣는 협력을 발표했다. 구글 클라우드에 따르면 GPT-6 Astra와 GPT-6.1 Sol, GPT-6 Luna 세 모델이 일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비공개 프리뷰에 들어갔고, 오픈AI는 정식 출시를 앞으로 몇 주 안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문 끝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오픈AI의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라는 한 줄이 붙었다.

세 모델은 쓰임새가 나뉜다. 구글 클라우드 제미나이 제품 관리 부사장 마이클 거스텐하버는 블로그에서 Astra를 코딩과 컴퓨터 사용, 전문 업무, 과학 연구 같은 까다로운 일에 맞춘 모델로, 6.1 Sol을 더 낮은 비용으로 Astra에 가까운 지능을 내는 모델로, Luna를 일상 업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로 소개했다. 메탈은 오픈AI가 GPT-6 모델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I

오픈AI, AT&T 사내 법무 AI 사례 공개



오픈AI가 10월 21일 미국 통신사 AT&T의 사내 법무 조직과 함께 일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AT&T 법무 부서에는 전 세계에 수백 명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가 있다. 두 회사가 가장 먼저 만들려는 것은 사내 법률 요청을 자연어로 받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뒤, 관련 판례와 과거 작업을 붙여 담당 변호사에게 넘기는 접수 시스템이다. AT&T는 앞서 10월 8일 오픈AI의 대표 사내 법무 설계 파트너로 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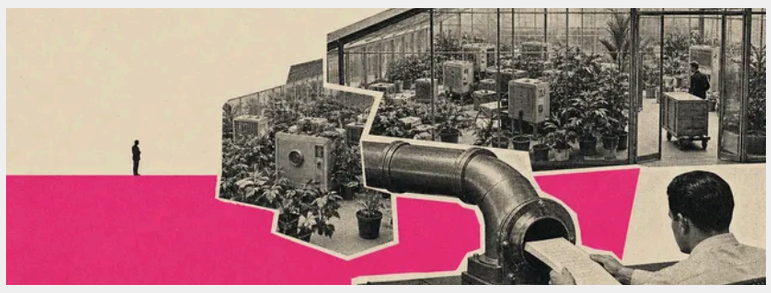
협업의 바탕은 AT&T 법무팀 안에 있는 AI 전담 조직 LegalEdge다. 2026년 1월 출범한 이 조직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기술자, 프로젝트 매니저로 꾸려졌고 첫 6개월 동안 100건 가까운 사안을 처리했다. AT&T는 LegalEdge를 AI 우선 전문 조직이라 부른다. 공개된 영상에서 AT&T 측은 LegalEdge가 지금은 회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구글 클라우드 모델 가든 입점



1 오픈AI와 구글 클라우드가 10월 21일 오픈AI 프런티어 모델과 코덱스를 구글 클라우드 모델 가든에 넣는 협력을 발표했다.

2 GPT-6 Astra·GPT-6.1 Sol·GPT-6 Luna가 일부 기업 고객 대상 비공개 프리뷰에 들어갔고, 정식 출시는 몇 주 안으로 계획됐다.

3 마켓플레이스 거래로 구글 클라우드 청구서 한 장에 묶이고 기존 약정을 차감하며, 데이터 무보존과 기밀 컴퓨팅은 곧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실무 핵심은 결제다. 오픈AI 모델은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되므로 사용료가 구글 클라우드 청구서 한 장에 함께 찍힌다. 구글 클라우드 지출 약정을 맺은 기업은 기존 약정액을 오픈AI 모델 구매에 차감해 쓸 수 있고, 모델 제공사를 가리지 않는 유연 절감 플랜(FSP) 실적에도 잡힌다. 별도 공급 계약 없이 이미 서명한 클라우드 예산 안에서 오픈AI 모델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FSP 문서는 제3자 제품에는 FSP 할인이 붙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이득은 단가 인하가 아니라 약정 차감이다.

데이터 조건은 지금 되는 것과 곧 되는 것으로 갈렸다.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의 프롬프트와 맥락, 출력이 고객이 정한 데이터 경계 안에 머물고 기반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든 질의는 격리된 게이트웨이를 거치고, 모든 에이전트와 모델 상호작용은 인증된 신원 아래에서 VPC 서비스 제어와 통합 감사 로그로 관리된다. 반면 데이터 무보존(ZDR) 옵션과 기밀 컴퓨팅(Confidential Compute)은 둘 다 곧 제공될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오픈AI 모델은 구글 클라우드의 전용 인프라에서 돈다.

코덱스는 첫날부터 붙는다.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이 이날부터 API로 세 모델을 쓰고, 로컬의 코덱스 CLI와 데스크톱 작업 흐름을 제미나이 플랫폼에 바로 연결해 추론을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자의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코덱스의 모델 호출이 회사의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청구되고 그 안에서 통제된다는 의미다. 오픈AI 모델은 구글 앤티그래비티(Antigravity)와 기업용 제미나이에도 곧 들어간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AT&T 사내 법무 AI 사례 공개



1 오픈AI가 10월 21일 AT&T 사내 법무 조직과의 협업 사례를 공개했고, 첫 과제로 요청을 자연어로 받아 분류·우선순위·선례 연결을 하는 접수 시스템을 소개했다.

2 협업의 바탕인 LegalEdge는 2026년 1월 출범해 첫 6개월 동안 100건 가까운 사안을 처리했으며, AT&T는 10월 8일 오픈AI의 대표 사내 법무 설계 파트너가 됐다고 발표했다.

3 에이전트의 쓰임은 변호사가 정하고 모든 업무 흐름에 사람의 검토를 넣는다고 했지만, 가동 시점·모델·비용·성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맥에이티 AT&T 수석부사장 겸 법무총괄(GC)은 "오픈AI와의 파트너십으로 회사 전체의 지식 계층을 움직이는 배관을 만들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거기서 끌어다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AT&T 측은 회사가 150년 동안 판례와 리서치 메모, 의견서를 쌓아 왔지만, 예전에는 변호사 한 명이 사안 하나를 맡아 각자 자기 방식으로 전문성을 키웠다고 돌아봤다. 쌓인 지식이 사람마다 흩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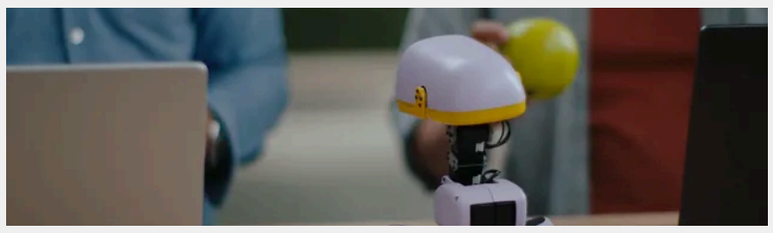
접수 시스템의 설계는 빌 라이언 AT&T 수석부사장 겸 최고준법책임자(CCO)가 설명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자연어로 요청을 받는 정문"이라고 불렀다. 요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선례와 리서치, 과거 작업을 연결한다. 담당자는 그 사안의 과거 맥락과 처음 밟을 단계에 대한 권고를 함께 받는다. 라이언은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더 큰 규모로 법률 판단을 제공하는 능력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전트가 맡는 일의 범위는 변호사가 정한다. AT&T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일에는 에이전트가 직접 답할 수 있다. 다른 일에서는 에이전트가 관련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다. 회사는 모든 업무 흐름에 거버넌스, 기밀 유지, 책임 소재, 사람의 검토를 넣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실제 업무 경험과 변호사의 감독을 바탕으로 법률 업무 흐름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고, 평가한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Decisions API 정식 출시



1 오픈AI가 10월 22일 분류·라우팅·다음 행동 선택 같은 작은 판단을 맡기는 Decisions API를 정식 출시했다.

2 베타 이후 GPT-Live 네이티브 연동, 프롬프트 캐싱, 미국·유럽연합 추론 레지던시가 붙었고 요청당 질문 한도는 400개로 두 배가 됐다.

3 박스·데이터독·램프·시에라·스피크가 속도와 비용 수치를 공개했고, 요금은 입력 토큰에만 매기며 출력 토큰은 과금하지 않는다.

쓰는 법은 단순하다. 개발자가 질문 하나와 허용되는 답을 정의하고, 판단에 필요한 맥락을 텍스트나 이미지, JSON으로 건넨다. API가 돌려주는 답은 세 유형이다. predicate는 어떤 조건이 참일 확률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추정한다. 상품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는지 같은 질문이다. choice는 개발자가 미리 정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확률과 신뢰도를 함께 준다. 에이전트가 작업을 계속할지, 다시 시도할지, 사용자에게 되물을지를 고르는 식이다. score는 순서가 있는 루브릭 단계에 입력을 매기고 단계 번호의 확률 가중 평균을 돌려준다.

초기 고객이 공개한 수치는 속도와 비용에 몰려 있다. 비스와룹 팔릿(Biswaroop Palit) 박스 제품관리 부사장은 "박스 익스트랙트와 Decisions API로 업무 문서를 분류해 다음 단계로 보낸다"며 "평가에서 보험 증명서 30건의 경로 선택이 Responses API와 같은 정확도로 약 5배 빨랐다"고 밝혔다. 신뢰도가 낮은 건은 검토자에게 넘긴다는 설명이다. AJ 스타이번버그(AJ Stuyvenberg) 데이터독 스태프 엔지니어는 에이전트가 만든 셸 명령의 위험도를 실행 전에 채점하는 데 이 API를 쓴다며 "다른 프런티어 모델과 비교해 비슷한 정확도로 p95 기준 40배 빨랐다"고 말했다.

다른 고객 수치도 같은 방향이다. 르네 술탄(René Sultan) 램프 리서치 엔지니어는 AI 비용을 실제 작업에 귀속시키는 일이 GPT-6 Luna보다 "4배 빠르고 30% 저렴해졌다"고 했다. 아지트 그레왈(Ajeet Grewal) 시에라 엔지니어는 실시간 고객 대화에서 다음 행동을 고르는 데 쓰는데 p95 280밀리초 미만으로 돌고, 이전 방식보다 약 3배 빠르며 호출당 비용은 90% 낮다고 밝혔다. 앤드루 수(Andrew Hsu) 스피크 최고기술책임자는 "언어 학습자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GPT-Live에 붙인 Decisions API가 다음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1.4초에서 0.13초로 90% 넘게 줄였다고 말했다.

AI

오픈AI, FDE 팀 운영 원칙 공개

콜린 자비스 오픈AI FDE 총괄이 고객사 현장 배치 엔지니어링 팀의 운영 원칙과 반도체·통신·회계 사례를 공개했다. 코덱스로 맞춤 코드 약 90%를 걷어 내자 두 달 걸린 배포가 다음 팀에선 하루로 줄었다.



1 오픈AI가 10월 22일 2025년 초 만든 현장 배치 엔지니어링(FDE) 팀의 운영 원칙을 공개했으며, 콜린 자비스 총괄은 배포 격차를 메우는 것이 팀의 목표라고 밝혔다.

2 대형 반도체 고객사에선 FDE 약 15명이 10개 넘는 사용 사례를 3~6개월 안에 운영에 올려 테스트 생성 시간을 약 48% 줄였고, 코덱스 중심 재구성으로 맞춤 코드 약 90%를 걷어 냈다.

3 통신사 음성 상담 모델은 연구팀과 함께 6개월 만에 핵심 평가 점수가 약 60%에서 90% 이상으로 올랐지만, 반도체·통신 고객사 이름과 수치의 측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픈AI가 고객사 현장에 엔지니어를 직접 들여보내는 현장 배치 엔지니어링(FDE) 팀의 운영 원칙과 고객 사례를 10월 22일 공개했다. 글을 쓴 콜린 자비스(Colin Jarvis) 오픈AI FDE 총괄은 2025년 초 이 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가 내건 목표는 모델이 할 수 있어 보이는 일과 사람들이 실제 업무에 믿고 쓸 수 있는 일 사이의 거리, 이른바 배포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공개된 사례에는 반도체 검증 테스트 생성 시간 약 48% 단축, 세금 신고 처리량 약 50% 증가, 음성 상담 모델의 핵심 평가 점수 약 60%에서 90% 이상으로 상승 같은 수치가 담겼다.

글은 팀 안에서 나온 질문 하나로 시작한다. 코덱스가 나왔을 때 한 팀원이 자비스에게 "몇 달 동안 만든 사용 사례를 코덱스가 한 번에 해내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자비스는 "몇 달마다 우리 스스로를 쓸모없게 만든다면 FDE 팀은 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FDE 팀 회의를 열 때마다 첫 슬라이드에 "결과에서 시작하고, 성공에 필요한 일을 다 한 뒤, 규모로 이어 간다"는 핵심 가치를 띄운다고 적었다. 이 문장이 팀의 운영 원칙이다.

첫 사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형 반도체 고객사다. 2025년 중반 FDE 약 15명이 이 회사의 10개 넘는 사용 사례에 붙어 칩 검증 과정을 AI 중심으로 바꿨다. 지시형 테스트 생성, 근본 원인 분석과 디버깅, 아키텍처 보조 도구가 대상이었다. 자비스에 따르면 이 업계에서 검증은 프로젝트 공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FDE도 있었고 반도체를 다뤄 본 적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고객사 검증팀에 들어가 남는 시간에 칩 설계를 공부했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AI가 쓸모 있는 테스트를 만들고 칩 고장을 제대로 진단하는지 재는 평가를 짰다.

AI

오픈AI, 챗GPT 광고 26개국 추가 확대

오픈AI가 챗GPT 광고를 중남미 14개국과 아프리카·아시아 등 26개국에 추가로 열어 판매 국가가 89개국이 됐다. 8개월여 동안 광고주 10만 곳 이상이 캠페인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 오픈AI가 10월 21일 챗GPT 광고를 26개국에 추가로 확대해 판매 국가가 89개국으로 늘었다.

2 광고 시작 8개월여 만에 10만 곳 넘는 광고주가 캠페인을 집행했으며, 광고는 무료와 고 요금제에만 붙는다.

3 보도에 따르면 광고 사업 연환산 매출은 8월 10억달러에 이르렀지만, 국가별 시작일·통화·지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픈AI가 10월 21일 챗GPT 광고를 26개국에 추가로 확대했다. 이로써 챗GPT 광고를 살 수 있는 나라는 89개국으로 늘었다. 회사는 8개월여 전 광고를 처음 내건 뒤 10만 곳이 넘는 광고주가 챗GPT에서 캠페인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무료 요금제와 고(Go) 요금제에만 붙고, 플러스와 프로, 엔터프라이즈 구독은 지금처럼 광고 없이 유지된다.

새로 열린 시장은 두 갈래다. 오픈AI는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14개국에 광고를 들인다고 밝혔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 추가됐다. 보도에 따르면 발표문이 이름을 밝힌 나라는 26개국 가운데 11개국이고 나머지 15개국은 공개되지 않았다. 광고주는 기술 파트너를 거치거나 광고 관리 도구인 애즈 매니저에서 직접 광고를 산다.

확장 속도는 가파르다. 메탈은 오픈AI가 9월 챗GPT 광고를 동남아와 대만으로 넓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챗GPT 광고는 8월 17일 기준 9개국에서 팔렸고, 8월 24일부터 29일 사이 유럽 31개 시장과 인도가 더해졌다. 9월 23일 동남아 7개 시장과 대만이 열렸을 때 오픈AI 도움말 페이지에 오른 나라는 63개국이었다. 여기에 이번 26개국을 더하면 89개국이 된다. 미국 시범 광고는 2월 9일 1000회 노출당 60달러로 시작했다.

AI

앤스로픽, 클로드 시큐리티 상시 스캔 공개

앤스로픽이 저장소를 한 번 연결하면 코드 변경을 따라 다시 스캔하고 고친 취약점을 스스로 해결 처리하는 클로드 시큐리티 새 버전을 엔터프라이즈 공개 베타로 내놨다. 위협 모델과 지식 베이스, API와 MCP 커넥터가 함께 붙었다.



1 앤스로픽이 10월 21일 클로드 시큐리티를 상시 스캔 방식으로 바꾼 새 버전을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공개 베타로 내놨다.

2 깊은 기준선 스캔 뒤 변경분을 위험도·복잡도에 따라 다시 스캔하고, 수정이 반영되면 해결 처리하며 재발하면 자동으로 다시 연다.

3 4월 공개 베타 이후 수천 개 조직이 100만 건 넘는 취약점을 찾았고, 조직마다 두 달간 매달 2만5000달러 무료 크레딧을 준다.

앤스로픽이 코드 보안 점검 도구 클로드 시큐리티(Claude Security)를 상시 스캔 방식으로 바꿨다. 회사는 10월 21일 저장소를 한 번 연결하면 클로드가 깊은 첫 스캔을 돌린 뒤 코드 변경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살피고, 고친 취약점은 스스로 해결 처리하는 새 버전을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 공개 베타로 내놨다. 누군가 스캔 버튼을 눌러야 돌아가던 도구가 코드베이스 옆에 붙어 있는 감시 장치가 된 셈이다.

출발점은 숫자다. 앤스로픽에 따르면 클로드 시큐리티가 4월 공개 베타에 들어간 뒤 수천 개 조직이 이 도구로 100만 건이 넘는 취약점을 찾았다. 회사는 "스캔은 한순간을 담을 뿐이고 코드는 매일 바뀐다"며 누가 일정을 잡지 않아도 최신 상태를 따라가는 점검을 고객들이 원했다고 설명했다. 메탈은 앤스로픽이 8월 클로드 시큐리티 스캔을 신모델 Mythos 5로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설정은 프로젝트 단위다.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클로드 깃허브 앱으로 저장소를 연결하거나, 깃랩 등 다른 깃 서비스는 액세스 토큰으로 붙인다.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서버도 지원한다. 저장소마다 브랜치와 범위를 고르면 클로드가 기준선 스캔을 먼저 돌리고, 이후에는 변경분의 위험도와 복잡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시 스캔한다. 한 프로젝트에 저장소를 여러 개 담을 수 있어, 클라이언트가 검증해야 할 입력을 백엔드가 그대로 믿는 식의 서비스 사이 틈도 잡아낸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